

2018 spring Vol. 37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News

# 박물관 풍경 風景



## 인천뮤지엄파크

3월 말 동경의 우에노공원에는 하나미[花見]라는 봄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죠. 그러나 우에노공원은 꽃놀이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1873년 빈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 처음 참가하였던 일본은 내전으로 폐허가 된 관영사의 터를 1876년 공원으로 조성하여 문화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국립박물관과 동물원이 1882년 개관한 이래 현재는 동경국립박물관, 국립과학박물관, 국립서양미술관, 우에노동물원, 동경문화회관, 일본예술원 등 운영주체를 달리하는 12개의 문화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문화시설들은 1,200여 그루의 벚나무를 중심으로 조성된 조경과 함께 어우러져 동경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동경에 모여든 노숙자들의 숙박 장소였고, 태평양전쟁 때는 피난민촌이었던 곳이 문화·예술공간과 휴식공간이 조화를 이룬 도시 재생의 대표적 모델이 된 것입니다.

송암미술관에 근무할 당시 미술관 주변에 문화시설을 집적화하는 사례로 우에노공원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시정부가 세 번 탈바꿈하고 나서야 장소를 동양제철화학 옛 공장지대로 옮겨 인천뮤지엄파크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천뮤지엄파크에는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예술공원과 함께 컬처스퀘어와 콘텐츠빌리지 등의 문화시설이 집적화될 예정입니다. 2022년이 되면 화학공장지대로 방치되었던 지역이 역사, 문화, 예술과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박물관에서 지역 정체성을 통해 정주의식을 이해하고, 미술관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다양한 콘텐츠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300만 문화도시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글 • 김상열(전시교육부)





창간일 2009년 3월 1일 발행인 정태범 발행일 2018년 4월 20일  
기획편집 전시교육부 이성용, 송완식  
제호 이태웅 디자인 인쇄 디자인센터 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TEL 032-440-6750 FAX 032-440-8871  
<http://museum.incheon.go.kr> | [www.facebook.com/icmuseum](http://www.facebook.com/icmuseum)

## CONTENTS

- 02 창으로 보는 풍경
- 04 기획 기사 I  
인천 뮤지엄 파크 그 미래를 위한 고언
- 08 기획 기사 II  
인천시립박물관 70년 여정(旅程)에  
대한 단상(斷想)
- 10 청소년 기획  
우리가 꿈꾸는 뮤지엄 파크
- 11 기획 기사 III  
뮤지엄파크 예정 부지
- 12 시간을 달리는 공간  
폴면의 원조, 광신제면
- 14 박물관 소식  
전시 / 교육 / 행사
- 16 유물 소개  
인천상공안내

## COVER STORY



### 박물관 소식지 구독 안내

박물관 소식지 박물관 풍경은 인천 지역 문화와 역사를 알고자 신청하시는 모든분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실 분의 성함과 주소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dlas@korea.kr](mailto:dlas@korea.kr)  
문의 440-6737



# 인천 뮤지엄 파크, 그 미래를 위한 고언

글 • 정준모  
(미술평론가)

## 미술관 박물관과 문화복지

다들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수출입물량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는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언필칭 경제대국이고 삶의 형편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57위에 속한다고 한다. 중하위에 속하는 셈이다. 왜 우리는 그토록 7~80년대 잘 살아가기 위해 내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부른 돼지도 못되고 그렇다고 행복한 소크라테스도 아닌 어정쩡한 지경에 머물러 있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여러 곳에



뉴욕현대미술관(MoMA)

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경제와 문화의 불균형' 즉 경제성장에 걸맞는 문화적 발전이 따라오지 못한 때문이다. 주머니가 불룩하고 배가 부르면 '행복'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막상 배가 부르고 보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21세기 인류 최대의 화두이자 모든 나라의 과제인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행복'에 집중되어있다. 사실 최근 들어 정부가 세금까지 지원하면서 시도하는 최저임금제도나 근무시간 단축 같은 것도 국민의 행복 때문이다. 최근 가장 흔한 말 중 하나가 된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도 따지고 보면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이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프지만 마음 편한 소크라테스를 지향한다. 물론 어느 정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타나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새삼스런 각성이 이런 현상을 부추긴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이미 18세기 영국의 공리주의 사사가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이 설파했던 “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는 말처럼 공공정책은 최대 다수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 전제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정책목표가 되었다.

이렇듯 삶의 질과 다수의 행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물론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문화와 교양’의 힘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 문화란 말의 의미는 매우 넓고 깊기 때문에 무어라 한마디로 단정짓기 어렵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생활양식과 상징체계이며 한 사회를 지탱하고 창조해온 지역과 사회와 국가가 공유하는 가치이다. 그리고 이렇게 공유하는 가치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 계승 발전시켜주는 기관이자 시설로 박물관과 미술관이 존재한다. 따라서 오늘날 미술관과 박물관을 논하려면 국민행복이라는 목표에 도달

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문화복지라는 개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주특기인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개발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미술관과 박물관을 설립·운영하기 전에 고려할 또 하나는 기관의 정체성이다. 사실 근대적인 국가가 성립하면서 미술관 박물관의 건립도 동시에 발생했다. 이전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사적인 공간이자 개인의 취미와 사적인 기호의 공간이었다. 영여권의 캐비닛(cabinet)이나 ‘경이의 방’ 정도로 새겨지는 분더캄머(Wunderkammer)가 그 시원이다. 하지만 근대국가가 탄생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을 체제 안에 편입시킬 필요가 생기면서 문화는 사회를 재생산하는 도구인 동시에 수단이 되었고, 국가나 사회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문화적 기제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어진 문화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설립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도시의 정체성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해야 한다.



뮤지엄 스퀘치, 오스트리아 빈



슈테델 뮤지엄,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몬미술관. 로마시대의 밀레토스 시장을 통째로 가져다 전시하고 있다



구겐하임미술관

## 인천의 뮤지엄 파크

인천은 인구 300백만에 이르는 대도시이다. 물론 서울에 근접한 위치 때문에 인천의 주간인구 지수는 92.2로 전국에서 가장 낮는데 이는 많은 인천시민들이 서울이나 기타 도시로 통근 또는 통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은 인천의 문화예술기관은 시민들이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 찾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소한 점부터 살펴보고 대응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껏 논의되고 있는 ‘인천 뮤지엄 파크’를 보면 2022년 즉 4년 뒤 완공해서 개관한다는 계획만 있는 상태로, 이 파크의 사명(MISSION)이나 비전(VISION)조차 분명하지 않다. 어쩌면 절실하게 필요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체납을 통해 부지가 생겼으니 사업을 추진하는 격이거나 이제 시세가 이정도 되었으니 규모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있어야겠다는 당위성이 추진의 배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사실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로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도시이다. 물론 이경성이라는 걸출한 인물 탓도 있지만 개항과 근대문물을 앞장서서 받아들이는 특징은 이를 통해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뮤지엄 파크의 구성을 보면 소위 문화가 돈이 된다는 문화산업론에 기반한 콘텐츠 빌리지가 더 중요하게 위치한다. 따라서 이런 구조로는 박물관도 미술관도 콘텐츠 산업도 게다가 복합문화광장이라는 이도 저도 아닌 ‘돈 먹는 하마’가 될 공산이 크며, 인천시는 먹이만 잔뜩 먹고 생산성은 없는 코끼리를 키우게 될 지도 모른다.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례조사 그리고 연간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먼저 검토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시설만 만들어놓으면 알아서 굴러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이 오늘날 전국에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미술관 박물관의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일부 전문성도 없는 사이비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문에 들떠서 지르고(?)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 미술관 박물관 복합단지로서 성공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인천시의 역사적, 문화적 측면과 도시의 특성, 경제적 능력 등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가장 성공적인 문화예술관광의 개발사례로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MQ(무제움스쿠바르티어, Museumsquartier)를 들 수 있다. 예전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차고로 쓰였던 60,000 m<sup>2</sup> (18,181평)의 부지에 현대미술관(MUMOK, Kunst Stiftung Ludwig Wien)과 레오폴드미술관(Leopold Museum), 쿤스트할레 빈(Kunsthalle Wien), 줌 어린이 미술관(Zoom Kindermuseum)과 건축전시와 리서치 중심의 건축센터(Architekturzentrum Wien), 현대무용 센터인 탄츠쿠바르티어(TanzQuartier), Q210이라는 레지던시(Artists-in-Residence), 예술과 기술 그리고 철학센터(Monochrom), 패션미술관(Modepalast), 젊은이를 위한 극장(DSCHUNDEL WIEN)외에 크고 작은 문화관련시설과 기관들이 공존하면서 연간 500백만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그렇잖아도 볼 것 많은 빈에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하게 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는 교류의 장이되어 주고 있다.

이런 문화집적단지의 또 다른 사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마인 강 남쪽 기슭의 거리 샤우마인카이(Schaumainkai)를 따라 슈테델 미술관(Staedel Museum)을 시작으로 수공예미술관(Museum für Kunsthandwerk)과 민속박물관(Museum der Weltkulturen), 영화박물관, 건축박물관, 우편박물관, 그리고 이콘박물관(Ikonenmuseum), 조각미술관(Liebighaus), 미술전시관인 기어쉬미술관(Museum Giersch)와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전시관인 포르티쿠스(Portikus)등이 줄을 잇고 있다. 그리고 이 강변거리를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거리’(Museumsufer)라고 부른다.

또한 독일의 베를린에는 박물관 섬(Museums



insel)이 있다. 16세기에 개발된 루스트가르텐(Lustgarten)을 시작으로 1824~1828년에 구박물관(Altes Museum)이 설립되었고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스틸라가 이 지역을 “예술과 과학의 성소”로 계획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리고 1843~1847년에 신박물관(Neues Museum)이 건립되었다. 외관은 평범하지만 내부장식은 호화로운 이 박물관은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2009년 복원되어 개관했다. 1876년 국립화화관(Alte National Galerie)이 개관했고 이후 1904년 신바로크 양식의 프리드리히 박물관으로 개관하여 1956년 보데박물관(Bode Museum)으로 개명했고 1997년 수리를 위해 문을 닫은 후 2000년부터 6년 동안 보수공사를 거쳐 2006년 재개관했다. 1930년에는 이 섬에 메소포타미아 유물을 주로 전시하는 페르가몬 박물관(Pergamon Museum)이 개관했다. 이렇게 약 1세기 동안에 걸쳐 박물관들이 모여 집적단지를 이루었고 이는 지난 1세기 동안의 박물관 변이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1999년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 이렇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집적화를 했고, 네덜란드에는 암스테르담 남쪽지역에 자리한 뮤지엄플레인(Museumplein)이 있다. 같은 경우로 이곳에는 2013년 대대적인 개보수공사를 거쳐 새로 개장한 네덜란드 국립미술관(Rijksmuseum)과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Stedelijk Museum Amsterdam) 그리고 2015년 증축공사를 끝낸 반고흐미술관(Van Gogh Museum)이 함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한편 뉴욕에는 자연스럽게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5번가를 따라 9개의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다. 82가에 메트로폴리탄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을 시작으로 86가에 노이에 갤러리(Neue Galerie New York), 88가에 솔로몬 구겐하임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 89가에 국립아카데미미술관 및 국립미술학교(National Academy Museum and School of Fine Arts), 91가에 쿠퍼 휴잇 국립디자인미술관( Cooper-Hewitt, National Design Museum), 92가에 유대인박물관(The Jewish Museum), 103가에 뉴욕시립미술관( Museum of the City of New York), 105가에 엘 무제오 델 바리오(El Museo del Barrio), 110번가에 아프리카센터(African Center)와 함께 그 인근 125가로 올라가면 할렘 스튜디오 미술관 (Studio Museum in Harlem)이, Met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2016년 메트 브로이어(Met Breuer)가 된 구 휘트니미술관이 근처에 있고, 그 아래로 프릭컬렉션(The Frick Collection)이 있다. 또 콜럼버스서커스 인근에 MAD(The Museum of Arts and Design)이 있고 바로 아래에 뉴욕근대미

술관(MoMa, Museum of Modern Art)이 자리해서 매우 중요한 미술관들이 군락을 이룬다. 미국의 서부도 예외는 아니다. LA는 2003년 Museum Row를 지정했는데 이미 이 지역에는 1979년 문을 연 MOCA(Museum of Contemporary Art)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미술관이 건립되기 전 일종의 POP-UP Museum처럼 The Geffen Contemporary at MOCA가 활동했다. 그리고 주변에 크고 작은 문화예술기관이 들어서면서 활성화되었다. 2003년 개관한 디즈니 콘서트홀(Disney Concert Hall)이후 2015년 더 브로드(The Broad)미술관이 개관하고 2017년에는 마르시아노 아트 파운데이션(Marciano Art Foundation)과 인스티튜트 오브 컨템포러리 아트(ICA LA)가 개관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적된 단지를 이루었다.

개발을 통해 조성되었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조성되었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미술관 박물관 단지는 간에 스스로 발전하고 변화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하고 매워주는 자생성, 즉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껏 대한민국의 수많은 미술관 박물관들이 존재감 없는 시설로 전략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수공예미술관 야경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수공예미술관

이유는 소위 지속가능한 시설과 콘텐츠는 차치하고 오직 토목사업의 하나로 간주하고 밀어붙인 때문이다. 금번 인천 뮤지엄파크도 늦게 시작하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다른 지자체의 실패한 사례들을 차분하게 검토하고 반영해서 반영교사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란다. 과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들어가야 할 경상경비와 인건비 그리고 문화예술시설로서 제대로 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얼마의 비용이 들지 그리고 인천시가 감당할 만한 정도인지 말이다. 개관한 다음 시민도 시설도 서로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글썽?



# 인천시립박물관 70년 여정(旅程)에 대한 단상(斷想)

글 • 이희인(유물관리부)



인천시립박물관 전경(1946~1950)



초대관장 이경성-박물관장 재직시절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경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 1일 광복 이후 처음 맞이하는 봄에 문을 열었다. 굳이 우리나라 박물관 족보를 들여보자면 1945년 12월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해 출발한 국립박물관의 개관보다 불과 4~5개월 늦은 일이었다. 광복 직후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어려웠던 어수선했던 시기였음을 생각해보면 인천시립박물관의 탄생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시립박물관의 시작은 무엇보다 28세의 젊은 미술학도였던 이경성의 열정적인 노력 덕분이었지만 한편으로 인천의 문화적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인천은 오늘날 문화의 측면에서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지만 광복 이후 시립도서관과 시립예술관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을 갖추고 있던 흔치 않은 도시였다. 개항 이후 인천으로 들어왔던 다양한 문물과 문화의 힘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앞선 시작이었지만 개관 이후 시립박물관이 걸어온 노정은 순탄치 않았다. 현재 자유공원 언덕 위에 있던 독일계 무역상사인 세창양행의 사택에서 360여점의 유물로 출발한 시립박물관은 얼마 뒤 인천상륙작전 당시 포격으로 건물이 파괴되기도 하였다.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전쟁이 끝난 후 언덕 아래 송학동 제물포구락부 건물에서 새롭게 출발 하였다. 재개관 이후 시립박물관은 상설전시이외에 인천지역 고적 조사, 사진전, 영화 상영, 음악 감상회, 미술 강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하면서 5~60년대 인천 지역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고 박물관에 대한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모든 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경성, 유희강, 우문국, 장인식 등 인천이 낳은 예술가 관장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문화예술인의 힘으로 운영되던 시립박물관은 60년대 말부터 행정 조직의 말단 기관화되고 인력과 예산도 터무니없이 부족해 80년대까지 전시실을 유지하는 정도로 명맥만 이어나가는 '죽어 있는' 박물관이 되기도 했다.

오랜 침체기를 지나온 박물관은 지역 사회의 문제 제기와 서울올림픽 개최

를 계기로 이전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40여 년간의 송학동 시대를 마치고 1990년 5월 현재 자리인 옥련동으로 이전 하면서 전시장이 늘어나고 처음으로 수장고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 만든 박물관 건물은 차곡차곡 쌓이는 인천의 기억을 시민과 함께 하기에 시설과 공간 모두 충분치 않게 되었다. 별도의 기획전시실이 없어 특별전을 개최하는데 애를 먹었고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 시설을 대관하기 위해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었다. 박물관 안팎의 요구로 지난 2006년 기존 건물을 증·개축해 기획전시실을 설치하고 수장고도 배로 늘렸다. 보존처리실과 200석 규모의 강당 등 현대 박물관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였다. 박물관이 문을 연지 60년 만의 일이었다. 시립박물관은 재개관 이후 특별전과 교육, 유물수집과 관리, 조사연구, 국제교류 등을 통해 인천을 밝히고, 알리고, 보존하고자 노력해왔다. 또,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등이 분관으로 새로운 식구가 되면서 박물관의 외연을 넓혀왔다.

그러나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져가고 박물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높이도 훨씬 높아졌다. 반면 안팎의 기대를 따라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박물관의 사정은 좋지 않다. 늘어나는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 테트리스가 필요한 좁은 수장고와 오랫동안 모아온 인천의 면모를 보여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전시 공간,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기 어려운 접근성 등 개선이 필요한 것이 많다. 지금이 바로 또 한 번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는 70여 년 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국립박물관이라는 자랑이 그야말로 왕년의 기억으로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 우리가 꿈꾸는 뮤지엄파크

글 • 6기 청소년기자

유성주 (인천여고)

멘토 • 서보경 (국민대학교)

편집 • 임예나 (전시교육부)



인천시립박물관이 2006년 리모델링 이후 다시 한 번 큰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인천 최초의 시립미술관 건립과 기존 박물관의 이전 및 확장, 컬처스퀘어, 콘텐츠빌리지, 예술 공원 등을 조성하여 복합문화공간인 '뮤지엄파크'로 재탄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인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중 유일하게 인천시에만 없었던 '시립미술관'이 들어서면서 더욱 효과적인 문화 소비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뮤지엄파크'가 조성된다면 다양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자 문화산업시설까지 향유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창작 공간인 아틀리에를 만들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각 연령층에 맞는 창작 체험(원데이 클래스 등)을 진행하여 여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간 문화시설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요즘 트렌드에 발맞춰 첨단 문화콘텐츠 체험관을 만들어 영상을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VR이나 4D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뮤지엄파크의 모습이 건물만 커다랗고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지 않는다면 확장의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와 박물관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개발 여건에 맞는 지역 문화와 예술이 조화를 갖춘 공간을 구축하고, 각 시설 간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만든다면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을 찾을 때면 항상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가족들과 자가용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주차 공간이 넓지 않아 차를 가져오는 것조차 편치 않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뮤지엄파크는 더 넓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익숙한 박물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천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박물관, 문화적 역량을 대표하는 문화 시설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뮤지엄파크 예정 부지

글 • 이성용(전시교육부)

인천 남구 학익동 주변에는 학익 분기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와 웅진군청, 인천 남부경찰서가 있다. 그리고 인천 남부 경찰서 부근에는 수인선을 위한 도로 공사로 울퉁불퉁한 도로가 많이 있었다. 지금은 도로 정비가 마무리되어 차량 통행에 불편함은 없지만 주변 산업 시설과 오랜시간 사람의 발길이 뜸한 것 같다. 이곳은 옹현·학익 1블록으로 최근 뉴스 기사로도 소개된 인천 뮤지엄 파크 조성사업 예정 부지 인근이다. 뮤지엄 파크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새롭게 변하게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고 주변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 하였다.

우뚝 선 공장 굴뚝의 모습과 정교하게 구성된 공장 산업 시설은 각각의 기능에 충실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작은 부품들의 모습처럼 보여 마치 시계 부속을 보는 것 같았다. 직접 공장 안의 모습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뉴욕 외곽에 위치한 디아비콘<sup>1)</sup>을 상상하게 되었다. 뉴욕 맨하탄에서 허드슨강을 따라 기차로 한 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미술관이다. 대형 공장의 특징을 살려 작은 공간에서는 쉽게 전시 할 수 없는 대형 작품들의 전시가 이뤄지고 있다. 런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AERN)과 마찬가지로 산업화를 상징하는 공장의 외형과 특징을 유지하여 내부 공간을 재구성해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활용한 사례들을 상상할 수 있었다.

예정 부지 인근에 제2경인 고속도로와 수인선 인하대역(학익역 미개통)이 근접해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다. 주변 부지는 대부분 공터로 남아 있지만 지적도 상에 휴양문화시설 부지와 마주하고 있으며, 주변 녹지와 공원 부지로 둘

러 싸여 있다. 간선 8번 버스를 비롯하여 8개의 버스 노선이 걸쳐진 곳이다. 인도 주변에는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다니는 대형 차량으로 인해 도로로 다니기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주변에는 생활편의 시설이나 기관 등 아직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없었다. 예정 부지 북쪽으로는 인하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서쪽으로는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변경의 지역 소통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기대로 자리매김한 옹현동과 인접해 있다. 송도·청라국제도시와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있고, 인천항 여객터미널과는 약 20분 인천국제공항과는 약 30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상당히 용이한 위치이다. 이상이 가볍게 다녀온 2018년 4월의 모습이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의 공간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짧은 이 글은 앞으로 뮤지엄 파크로 새롭게 구성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첫 시작이 될 것이다.

뮤지엄 파크 조성 사업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이전과 시립미술관의 개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그 주변으로 예술 공원과 기타 문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직 큰 걸음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풀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다양한 의견과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중을 위한 미술을 뜻하는 용어로 공공미술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공공미술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인천 뮤지엄 파크를 지역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재로 조성하여 인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과 노력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1) 뉴욕 외곽에 위치한 디아비콘(DiaBeacon)은 디아 예술 재단(Dia Art Foundation)에서 운영하는 현대 미술관이다. 1923년에 지어진 포장지 제조공장을 개조하여 현대 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정 부지 중심으로 북쪽 풍경



예정 부지 중심으로 서쪽 풍경



예정 부지 중심으로 남쪽 풍경



16년 전에 광신제면을 인수하고 한결같이 면발을 뽑는 하경우, 이영조씨 부부

## 쫄면의 원조, 광신제면

글 · 김시연(시인)

어느 날 문득,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 느닷없이 생각난다고나 할까.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겠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쫄면이다. 몸살감기나 피로로 입맛을 잃었을 때, 좀 더 기운을 차리고 싶을 때 쫄면은 어느 정도 입맛을 돌려놓는다. 새콤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쫄면을 먹으면 기운이 절로 난다. 나이를 먹으면서 밥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인지 면을 먹는 일이 많이 줄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쫄면을 선택한다. 쫄면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심이 넉넉한 편이다.

쫄면에는 지난날의 추억이 깃들어 있다. 순식간에 학창시절로 되돌려 놓는다. 선화여중을 다닐 때는 하곶길에 분식점을 들어갔다. 제물포역 주변에 길게 줄지어 있던 분식점은 학생들로 늘 붐볐다. 가계마다 쫄면, 떡볶이가 대세였다. 당시 선인학원이 있던 제물포역은 통학 시간이면 학생들에 떠밀려 다닐 만큼 학생이 많았다. 가끔은 동인천으로 나서기도 했다. 다름 아닌 대동학생백화점 2층 분식점에 디제이 오빠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심한 성격도 한몫했겠지만, 대동학생백화점에 쫄면을 먹으러 가는 일은 무척 큰 일탈이고 중요한 행사였다.

### 학생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들리는 듯

고등학교를 가서도 쫄면은 여전히 친근했다. 지금은 연수동에 있지만, 당시 인천여고는 동인천역에서 가까웠다. 대хан서림을 기점으로 주변에는 음식점이 얼마나 많았던지. 맛나당, 만복당, 명물당, 감미당 등 '당' 자로 끝나는 음식점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반에 쫄면계를 둔 팀이 두세 팀 있었다. 친한 친구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쫄면과 우무를 먹었고, 매운 입맛을 달래기 위해 서주 아이스바를 먹었다. 지금도 어쩌다 그 골목을 지날 때면 수많은 '-당'에 모여 떠드는 학생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쫄깃한' 쫄면은 인천에서 태어났다. '광신제면'이라는 면발 만드는 공장에서 탄생했다. 알려진 바로는, 직원이 과로에 시달린 채 일하다가 면 뽑는 기계인 사출기 구멍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탄생했다고 한다. 당시 동인천역 주변과 배다리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늘 붐볐다고 한다. 손바닥 안에 들어갈 만한 크기인 사출기는 면의 종류에 따

라 각각 다르다.

오랜만에 '광신제면'을 찾아갔다. 하경우, 이영조 부부가 면을 뽑고 있었다. 토요일이라 설 법도 하지만 주문받은 면이 있어서 기계를 돌린다고 했다. 16년 전에 공장을 인수해서 일을 시작했다는 부부는 예전보다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 전에는 남편 하경우씨가 일을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일을 거들었지만, 지금은 부부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면도 뽑고 택배도 보낸다. 직원을 둘 만큼 규모가 크지도 않지만, 단가가 오를까 봐 엄두를 내지 못한다.

광신제면에서 만드는 면발은 방부제를 쓰지 않는다. "면발은 꼭 냉동실에 보관해야 된다. 냉동실에 있으면 더 쫄깃해진다. 생면은 오래두면 상하니까 빨리 먹어야 한다. 우리 음식은 모두 맛있다. 한 번 맛본 사람은 또다시 온다."

하경우씨는 "충남 온양이 고향인데, 인천에서 30년 넘게 살았다.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국제금융위기(IMF) 때 어려워져서 정리했다. 때마침 아는 이가 여기를 소개해 줘서 왔다"고 말했다. 그때는 농

산물시장이 구월동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동인천 주변에 있던 청과상이 다 빠져나갈 때였다.

### 과로로 지친 직원의 실수로 탄생한 쫄면 면발

70년대 동인천역, 경동, 배다리 주변은 어땠을까. 이들 부부가 가게를 인수받았을 때는 동인천역에서 배다리 방향으로 청과물도매상이 무척 많았다. 하경우씨는 당시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다. “그쪽으로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면발을 빼는 대로 가져갔다고 한다. 새벽까지 면발을 뽑아도 모자라고, 그렇게 일하느라 직원들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당연히 ‘불량품’이 나오지 않았겠나. 잠도 모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러다 직원 하나가 면발 굵기를 조절하는 사출기 구멍에 잘못 넣었다. 그래서 면면보다 굵은 면발이 나오고, 주인이 버리기 아까우니까 활용했다. 그 면발을 주변에 있는 분식점에 넘겼는데, 한 집에서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 내놓았는데 그게 잘 팔렸다. 한마디로 대박난 거다. 더 굵고 맛있고 쫄깃한 면이 탄생했다.”

부부는 가게를 인수하고서야 쫄면의 존재(?)를 알았다. 쫄면이라는 음식을 모른 채 인수했다. 물론 처음부터 가게가 잘되진 않았다. 남편은 직장을 따로 잡고 일하면서 광신제면 일을 했고, 한때는 공장이 너무 안 돼서 다른 일을 하면서 면발을 뽑

아야 했다.

부부는 흔히 알려진 쫄면의 탄생 이야기를 좀 다르게도 풀어냈다. “직원이 과로로 졸다가 실수해서 쫄면이 만들어진 이야기는 맞다. 하지만 안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다. 처음에는 맛나당에서 우동을 더 쫄깃하게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한번에 안 된 것 같다. 쫄깃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무척 했을 것 같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아차 실수해서 된 것 같지 않고, 여러 사람이 수없이 시도하다 어느 날 쫄면 면발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이들 부부는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없으면 문을 꼭 연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광신제면이 점점 알려져서 멀리서도 믿고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고, 직접 작성하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있다. 혹시나 그들이 허탕치면 너무 미안하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다.

### ‘쫄면의 탄생지’에 자부심, 아들이 이어가길 바래

부부에게 쫄면을 많이 드시냐고 물었다. “요즘 아들 덕분에 많이 먹는다. 29살 된 막내아들이 맛있는 쫄면을 만드느라 바쁘다. 새콤달콤 사람들이 좋아하는 쫄면 장사를 해보겠다면서 날마다 연습한다. 우리는 면 종류를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아

들이 만들어주는 쫄면은 잘 먹는다. 취직하기 힘들기도 하고, 또 쫄면에 관심이 많으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일 쪽으로 자기 일을 굳히는 것 같다. 날마다 양념, 간장, 소스를 만들고 부엌을 어수선하게 늘어놓은 채 열심히 실험한다. 우리가 먹기엔 괜찮아도 스스로 예민하고 간간하게 맛을 내고 싶어한다. 곧 자기 입맛에 맞는 쫄면을 만들 것이다.” 이들은 아들의 결정을 지지한다. 아들이 쫄면을 만들어 내놓고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을 지적해달라고 한다. 끈기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든든하다.

이들은 광신제면이 쫄면의 탄생지라는 사실을 깊이 존중한다. 또한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는 면을 만드는 사실에도 자부심이 있다. 쫄면 반죽은 모두 중력분으로 하고 있다. “전분, 소금, 소다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삶은 다음 전분이 빠져나가게 빨아야 한다. 그리고 쫄면도 찹, 메밀을 넣을 수 있다. 쫄면도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쫄면은 누렇게만 되는 게 아니다.”

이들은 참으로 소박한 소망이 있다. “우리 광신제면에서 만들어내는 면발을 사 먹는 모든 사람이 모두 부자 되고 건강하면 좋겠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면발을 먹으면서 아, 잘 먹었다. 쫄면도 맛있고 양념도 맛있다고 하면 좋겠다. 쫄면 면발처럼 하는 일이 술술 풀려나가길 바란다.”



쫄면의 원조-광신제면 입구



주문받은 면발을 뽑고 있는 하경우씨



광신제면에서 사용하는 사출기 모음. 면발을 뽑는 구멍이 커져서 못 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쓰고 있다



쫄면 면발을 뽑는 기계 옆에 포장된 상품이 놓여 있다



## 박물관 소식 전시 / 교육 / 행사

### 시립박물관

#### 어린이 교육 <가자! 박물관으로>

**주제** 가자! 박물관으로  
**기간** 학기 중 화요일~금요일, 10~12시  
**장소** 박물관 해설이방, 상설전시실  
**내용** 전시 및 교과 연계 체험학습

대상	교육명	교육내용
1학년	옛날 옛적 인천이야기	비류 설화 애니메이션 감상 후 니만의 두루미 만들기
2학년	최치목표! 인천으로 떠나는 가차여행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를 주제로 한 니만의 가차 만들기
3학년	박물관의 보물을 부탁해	박물관의 보물을 찾고 OX퀴즈를 통해 보물 획득
4학년	출동! 박물관 미션왕	다섯 가지 미션과 스피드 퀴즈를 통해 미션왕 선발
5학년	박물관 탐험대	박물관 탐험 후 지도 만들기를 통해 명예탐험대 등록
6학년	박물관의 특종을 잡아라	박물관 신문 기사가 되어 인천 역사의 특종 취재

**대상** 초등학교 한 학급 (25명 내외)  
**재료비** 무료  
**신청** 인터넷 접수 후 추첨 방식  
 (일정 확정 후 팩스 접수)  
**문의** 전시교육부 032-440-6739

#### 작은전시 <낯선 땅에 잡들다>展

**내용** 개항이후 건립된 외국인 묘지에 대한 시대적 격변  
 과 과정을 재조명 하고 피장자들의 흔적과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계기 마련  
**일시** 2018. 4. 24(화)~10. 28(일)  
**장소** 박물관 작은전시실  
**문의** 032-440-6736



#### 성인교육 <제20기 박물관대학 상반기 과정>

**제목** 제물포항에 잠든 외국인들  
**기간** 2018. 5. 25(금)~7.20(금) 매주 금요일 총 9강  
**장소** 박물관 1층 석남홀  
**접수** 5. 1(화)~5. 21(월)  
**신청** 박물관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선착순 140명)  
**수강료** 무료  
**문의** 032-440-6732

연번	날짜	분야	강 의 주 제	강 사
1	5월 25일	개관	제물포항 외국인 묘지 피장자 5명은 누구인가	이영미 (건양대)
2	6월 1일	통합	제물포 해관과 해관원- 제물포항에 잠든 해관원의 꿈	김성수 (울산세관)
3	6월 8일	통합	중국인 묘지와 중국인- 오래된 묘지를 중심으로	송승석 (인천대)
4	6월 15일	통합	제물포의 화교- 화교의 변천을 중심으로	이정희 (인천대)
5	6월 22일	지역	인천 제물포 조계의 설정과 일본인 묘지의 변천	김용하 (전 인천발전 연구원)
6	6월 29일	인물	청년 랜디스, 제물포에 젊음을 바치다 - 의료, 교육, 그리고 한국학 연구	이영호 (인하대)
7	7월 6일	답사	답사 -부평 가족 공원의 인천 외국인 묘지	
8	7월 13일	인물	제물포에 얽힌 하와이 이민 3총사의 생애 - 존스, 알렌, 데일리를 중심으로	박철호 (향토사 연구가)
9	7월 20일	지역	인천외 타지역 외국인 묘지 답사기 - 전주, 광주, 창원 대구 등을 중심으로	정민섭 (인천시립 박물관)

### 검단선사박물관

#### 주말교육프로그램

**제목** '톡톡톡! 알록달록 이야기 가방',  
 '우리 동네 과거 여행'  
**내용** 선사시대 유물을 장식으로 한 가방 만들기,  
 시대별 팝업 북 만들기  
**일시** 3~6월 매달 세 번째 토요일  
 (단 5월은 두 번째 토요일)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상설전시실, 아동도서관  
**대상** 6세~초등학교 6학년  
**신청** 매달 교육 2주전 화요일 홈페이지  
 (<http://sunsaincheon.go.kr>) 선착순 접수,  
**재료비** 5천원  
**문의** 032-440-6798

날짜	3월 17일 / 4월 21일 5월 12일 / 6월 16일	
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4시~16시)
교육명	<톡톡톡! 알록달록 이야기 가방>	<우리 동네 과거 여행>
내용	유물 도안을 잉크로 찍 어 내는 스텐실 기법을 이용해 박물관에 전시되 어 있는 유물을 가방에 옮겨 장식해 보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	전시실 관람을 통해 검단 등 우리 동네에 서 발굴 된 유물들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대별 팝업 북을 제작해 보는 전 시연계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6세~초등학교 동반 가족, 회당 5가족	초등학교 3~6학년, 회당 15명 내외

#### 검단선사박물관 여름민속행사

**제목** 반짝반짝, 여름이 좋아  
**내용** 여름맞이 절기음식 나누기, 전통 놀이,  
 장명루 만들기 등  
**일자** 6월 23일(토)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1층 로비, 2층 하늘정원  
**대상** 시민 누구나  
**신청** 별도의 신청과정 없음  
**참가비** 무료  
**문의** 032-440-6796

## 송암미술관

## 어린이교육 &lt;알송달송 미술관&gt;

**제목** 출동! 열두수호신을 찾아라 외  
**내용** 전시 연계 교육  
**일시** 2018. 학기 중 / 10:00~12:00  
**장소** 송암미술관 전시실 및 강당  
**대상** 초등학교 학급 단체(화당 30명 이내)  
**신청** 송암미술관 홈페이지 신청(선착순 마감)  
**문의** 032-440-6785~6

교육명	대상	주제	교육구성	소요시간
출동! 열두 수호신이 간다	3~4학년	십이지신 이야기	○오티(10분): 소개 및 관람예절 ○강의(20분): 십이지신 이야기 ○미션(30분): 십이지신을 찾아라! ○체험(40분): 나만의 십이지신 연필 만들기 ○정리(20분): 발표 및 마무리	2시간
백두대 조선	5~6학년	조선시대 선비문화와 '사군자'	○오티(10분): 소개 및 관람예절 ○강의(20분): 조선시대 선비문화 ○미션(30분): 선비들이 사랑한 사군자 ○체험(40분): 사군자 그리기 및 찬(讚) 쓰기 ○정리(20분): 발표 및 마무리	2시간

## 송암미술관 청소년교육 &lt;꿈을 그리는 미술관&gt;

**주제** 드로잉 뮤지움  
**내용** 큐레이터 직업 체험  
**일시** 2018. 학기 중 / 14:00~16:00  
**장소** 송암미술관 전시실 및 강당  
**대상** 중·고등학교 학급 단체(화당 30명 이내)  
**신청** 송암미술관 홈페이지 신청(선착순 마감)  
**문의** 032-440-6785~6

교육명	교육구성	소요시간
꿈을 그리는 미술관 "드로잉 뮤지움"	○ 전시관람(30분): 상설전시 ○ 이론강의(30분): 미술관과 학예연구사 ○ 체험학습(60분): 보존차리의 세계	2시간

## 인천도시역사관

## 인천 도시 탐구생활

**주제** 주말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인천 도시 탐구생활>  
**내용** 전시 감상을 통한 개항 이후 인천 도시 공간의 변화 이해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저학년\_ '내가 그리는 그림책' 팝업북 만들기  
 고학년\_ '내가 그리는 만화'  
 조별 5컷 만화 그리기  
**일시** 2018년 4~6월 넷째주 토요일 (4/28, 5/26, 6/23)  
 저학년\_ 10:00~12:00 / 고학년\_ 14:00~16:30  
**장소** 인천도시역사관 1층 전시실 및 교육실  
**대상** 초등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  
**신청** 선착순 사전 예약 (화당 20명)  
**문의** 032-850-6016, 032-850-6030



## 한국이민사박물관

## 청소년교육 &lt;포와(하와이)로 가는 길&gt;

**제목** 인천이민과 관련한 역사기행  
**내용** 1900년대 초 우리나라 공식이민의 출발지였던 인천의 주요 장소를 답사하며 이민의 역사를 알아보는 프로그램  
**일시** 2018. 4~5월 셋째주 금요일 오후 2~4시, 토요일 10~12시  
**장소** 한국이민사박물관 및 개항장 일대  
**대상** 관내 중·고등학교 학급 혹은 동아리(30명 내외)  
**신청** 박물관 홈페이지





## 인천상공안내

### 사진 자료

1935년, 19×26

인천어상조합(仁川御商組合)에서 발행한 '인천상공안내(仁川商工案内)'이다. 1935년에 발행한 것으로 당시 인천부의 상업 현황을 소개하고 관련 업종의 각종 광고를 싣고 있다. 수록된 자료를 통하여 1930년대 인천의 상업현황을 알 수 있으며, 통상구조 또한 미루어 파악할 수 있다.

사진의 원편은 접지하여 포함된 '인천부내도(仁川府內圖)'로 인천항 주변의 주요 상점들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오른편은 조일양조주식회사의 금강표 소주 광고이다.

조일양조주식회사는 1919년 10월 한국 최초로 설립된 소주양조회사이다. 대표 상품인 '금강표' 소주는 대만 당밀 혼합 원료와 기계식 생산체제로 가격이 저렴했고, 시음행사 등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통해 널리 애용되었다. 1925년에는 기계를 증설해 대규모 생산체제를 갖추었다. 조일양조의 주도로 인천 양조업은 전국적으로 각광받았다. 개항 이후 근대적 항만과 철도교통을 갖춘 인천에 미곡이 집산하며 정미업이 발달하고 뒤이어 양조업이 활개를 뽐낸 것은 필연적인 일일 것이다. 다른 광고 속 인천주조조합, 조선해양사, 인천기선주식회사 등의 설립과 약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천상공안내(仁川商工案内)'를 넘겨보노라면 1930년대 인천의 '활황'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다. 수출입 화물을 실은 기선이 빠르게 들어선 항구, 항구와 공장을 분주히 오가는 노동자들, 갖가지 상점과 붐비는 사람들, 이면에는 미두와 같이 강제 이식된 자본주의의 폐해도 있었지만 책자에는 실리지 않았다. 식민도시 인천부의 반쪽짜리 활기는 곧 사그라졌다.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인해 통상구조가 완전히 기형화되었기 때문이다.

글·강해라(전시교육부)